믿음 외식 이단 구분법

(눅18:1-8)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 외식 이단 구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 외식, 이단 구분법'
오늘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제 속에서는 주님께서 믿음을 혹시 못 보시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속에

서도 믿음을 못 보신다는 것이냐?
날마다 새벽제단을 지키시는 권사님에게서도 믿음을 보실 수 없다는 얘기냐?
헌금 많이 내고 겸손하신 장로님의 마음속에서도 믿음을 보실 수가 없다는 얘기일까?
뉘앙스로 봐서는 믿음을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 본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이 뭐기에 주님께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본문에서 말한 대로라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한 맺힌 기도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게서 기도가 나오게 돼있는데, 그 기도는 한 맺힌 기도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복수를 해주신다, 이런 얘깁니다.
앙갚음을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에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교훈입니다.
또, 왼 뺨을 때리면 오른편까지 갖다 대라고 하시고, 5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께서 복수해줄 테니 한 맺힌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맺힌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준점으로 볼 때 외식과 이단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그 아니냐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식이 있고 이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교회에 들어와 봐야 외식하는 자를 보거나, 이단들을 보거나 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외식과 이단을 따질 때, 절대 여러분들은 기성교단의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람이 많은 부흥을 이루었다고 현혹되지도 마시고, '봐, 천 억짜리 예배당 건물을 지었지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이런 기준을 갖고 보셔도 안 됩니다.
순수하게 신앙적인 내용만 가지고 봅니다.
그렇게 부흥과 세상적인 번영만 생각한다면 통일교처럼 번영하고 신천지처럼 부흥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성교단 교회 중에 부흥한다고 해도 신천지만큼 통일교만큼 부흥하고 자리 잡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준은 다 제쳐놓고, 또 정통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용적으로 이단이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계급장 떼놓고, 이 세상이 마련한 모든 기준을 제쳐놓고 믿음과 외식과 이단을 한번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가려내 보자 이겁니다.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의 이단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양립을 믿느냐, 이런 이단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이단을 가려낼 때 가장 대표적인 실천항목이 기도입니다.
하여간 종교인이라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바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소원이지만, 절대자(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앞에서 내 소원을 아뢰고 비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혼자 갖고 있는 바람이 소원이라면, 절대자 앞에서 내뱉는 바람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단인지 외식하는지 참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은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사람의 소원이 통일일 수는 없습니다, 일본사람의 소원이 통일일 수 없습니다.
일본사람의 소원은 독도를 자기 땅으로 갖는 것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침략이에요.
이처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소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영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상황이 17장에서 그렇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와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천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도 실제로 내 아버지가 돼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마음 안이라는 얘기는 'inside 마음'이 아니라 'within 마음', 즉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마음 안쪽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내 마음이 중간에 있고, 주님께서 마음 안쪽으로 천국을 갖고 오셨고, 마음 바깥쪽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다 쏟으며 살고 있던 바깥세상, 몸이 있고 몸으로 접하게 되는 이 인간사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인간사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서 믿음이 아니거나, 이단의 기도라서 아주 척결하고 배척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해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참 기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한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 복수를 원하는 기도, 앙갚음을 원하는 기도가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왜 선택받은 자들이 앙갚음과 복수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일까?
주님께서 천국을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가까이 가져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실재하는 천국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까이 온 것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벌고 싶어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천국이 있고 그 천국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인간세상인 바깥세상과 천국인 마음의 안쪽 세상의 중간에 있는 마음이,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하나님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매여 있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 마음이 돈에 매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 몸의 건강에 매여 있습니다, 자식에게 매여 있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고, 남편에게 매여 있고, 내 사업에 매여 있고,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판을 보존하려고, 자식들에게 마음 쓰느라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갖고 오신 천국 쪽으로 마음을 쏟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원한이 생깁니다.
한이 맺히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이 모든 관계에 매여서,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께 다 쏟고 싶은데 쏟을 수가 없어서 이 세상 모든 것, 마음바깥 쪽의 몸으로 관계되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원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데, 마음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이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줄을 몰랐어요.
매여 있음이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게 속박이고 구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세월이 지나 남자가 은퇴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 남편의 존재자체가 짐이에요, 속박이고 구속입니다.
할머니들끼리 나가서 단풍놀이도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 점심 저녁 차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속이에요.
옛날에는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고,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사랑할 때는 매임이 구속이 아닌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구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속으로 느껴지고, 압박으로 느껴지고, 나를 노예화시키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 세상에서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원한의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 '내가 제발 마음을 자식에게서부터 회수해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마음을 자식에게 쏟지 않게 해주세요!'
왜입니까?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니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해주세요!' 한이 맺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쉽게 말해 입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연결이 돼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와~!' 그럽니다.
서울대 들어간 자식을 둔 부모를 보면 '와~!' 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오직 우리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계산을 합니다, '영광을 드러내려면 일류대학에 가는 게 유리하지!'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기성교단, 특히 제가 장로교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장로교 통합측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서 신학교까지 거기를 나왔어요, 이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외식이에요.
입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그대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축복해주시는 걸로 압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 마음을 떼지 못해, 돈이 나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

혀있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안절부절 하는 이 모습에 대해 한이 맺혀있지를 않는 거예요.
건강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말로만 천국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지, 지금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머물기 원한다' 그 소리를 겁나서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왜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아니, 마음 안쪽에 있는 천국이 기쁨의 이유가 돼야지, 숫자 때문에 연연해하는 자기 자신의 매임에 한이 맺혀야지 그게 진짜 선택받은 목사님이지, 교인이 안 오는 데에 한이 맺히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단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천지의 교리를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보았는데, 참,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고, 모세를 통해 약속해준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주신 것이 바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핵심 이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상천국을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천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자리에 머물렀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것이 목자인데, 그 목자가 누군가 하면 이만희라 이겁니다, 그 이만희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상천국!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이단입니다.
이 땅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마음의 바깥영역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자들 이단입니다.
그것이 어느 교단이건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이건 합동이건, 감리교이건, 성결교이건, 어떤 정통교단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다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들, 돈, 건강, 장수, 세상의 가치를 따른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강단은 다 이단의 아류입니다.
다 이단이고 사이비에요.

우리는 마음 안쪽에 갖고 오신 천국과 하나님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만나서, 그 천국의 기쁨에 젖어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이 지상의 모든 조건, 돈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그 요한사도가 서신을 쓰던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임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장수하기는커녕 요절해야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자 되기는커녕 모든 재산을 다 잃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고 사이비에요.
마음 바깥영역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모든 의도,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이 마음 바깥영역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씨줄과 날줄로 엮어져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하는 식으로 성공하는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초대기독교인 모두를 로마의 압제 하에서 순교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던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과 이런 악귀들이 지금 신천지나 문선명 같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외식하는 자이고, 다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나라를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세상의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잡아끌고 방해하고 노예화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 한이 맺혀서 원수 갚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 바깥쪽의 이 땅 위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 모든 순간에 대해 아버지의 뜻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은 온통 주님께서 가져오신 천국과 하나님아버지께만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죄적 본성을 한이 맺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꼭 성령 받아서 기필코 이 구속과 속박의 끈을 끊고 해방을 얻어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